대구광역 Weekend

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5월 9일 목요일(木) I 제5407호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하다

관련기사 2·3면

5월은 참 푸르다.
가정의 달 이다. 그리고 어버이 날이다.
‘어머니 은혜’ 가사는 왠지 모르게 코 찡긋하다.
나의 어버이를 생각하며 또다시 먹먹해 지고 가슴아려온다.
아버지가 되어서야 어버이를 이해하게 됐다
뒤늦은 후회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버이 사랑을 되새기는 자식들이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하다.
생계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고군분투했을 테니 말이다.
이제 세월 흘러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쪼그라 든 손이 됐다.
오늘 그손에 입맞춤 하려니 눈물 쏟아질까 두렵다.
그래도 꼭 잡고 놓고 싶지않다
오늘 만큼은 말이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시고 애쓰심에 감사드린다.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아버지가 돼서야 어버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당신의 세월에 보답 하는 의미로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며 감사한 마음 전달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 날 감동적인 시다.

5월은 다정한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날(21일) 등 가족 구성원이 서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날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가정의달'로도 불린다.

1993년 UN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시작,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5월 한 달 동안, 또 일 년 내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랑한다고 표현 해보자.

5월 가정의 달 행사가 풍성하다.

▣핵가족 시대 속 3대가 화목…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대가족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요즘, 여든 노모를 모시며 2명의 자녀와 다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살고 있는 김동수(52)·이현주(51)씨 부부.

김씨 부부는 맞벌이하면서도 올해로 86세 노모를 모시며 2남의 자녀와 화목하고 다복한 3대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뻔한 직장인의 수입으로 지난 수년간 자녀들의 학비와 노모의 병원비 지출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웃어른에 대한 효심과 형제자매간 우애는 근동에서 모두 부러워할 만큼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7남매의 막내인 김씨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듯하게 자라주는 자녀들을 보며 삶의 힘을 얻고 있다.

부인 이씨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전담해 보살폈다. 그러던 중 요양 관련 일을 해보고자 마음먹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며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친가와 외가 어머니들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쇠약해지는 보습을 보니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요양 쪽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씨의 장남 상준(27)씨는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내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맏아들 상준씨는 지난 2021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구지역 내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동생(혁준씨)은 현재 성서공단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상준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께서 집에 같이 사시며 키워주셨다"며 "어릴 적 차려주셨던 밥상이 가끔 생각난다. 어릴 때 먹은 맛이지만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이나 제사 때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바글바글 지냈지만 코로나 이후 모임이 자연스레 줄어들어 친척들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다"며 "할머니께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해 속상해하신다"고 토로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대구시의 인구 증감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으나 2인 이하 가구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시 인구는 236만662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433명이 감소했다.

반면 가구수 증가율은 2022년 대비 2.1%(2만3275가구)로, 109만4148가구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중구가 2022년에 비해 4122명(9.18%)이 늘어 4만4871명을 기록했고 동구 3269명(2%), 서구 2833명(3.37%), 수성구 459명(0.26%), 달성군 1064명(0.93%) 증가했다.

북구는 1348명(0.7%)이 감소했으며, 남구(514명, 0.67%), 달서구(198명, 0.08%)도 인구가 줄었다.

▣경북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경북도는 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 오늘 더 사랑합니다"라는 구호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지역사회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 문화확산을 위해서다.

행사는 식전 공연, 공식 행사, 퍼포먼스, 효도 상차림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교육감,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장,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과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평생을 헌신해 온 당신의 세월에 보답'하는 의미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기념식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효를 실천한 민간인과 효행 유공 공무원 등 29명(민간단체1, 민간인21, 공무원7)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장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에 동참의 뜻으로 '효도가 별거 있나, 손주가 효도지!!'라고 하며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1753만원을 전달했다.

기념식 마무리에서는 경북도청 어린이집 친구들의 '어버이 은혜' 합창에 이어 '저출생 극복'과 '도정의 미래'를 함께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연출해 '63만 어르신의 힘으로 경북을 열어 간다.'는 염원과 의지를 담았다.

도는 한분 한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행복 선생님 538명을 배치하여 건강·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로당에 실내·외 청소 및 환경정비를 위해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 7,800여 명을 배치해 '경북형 행복경로당'을 완성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경북도가 63만 어르신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 차고, 손자·손녀 재롱 보며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경북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는 어버이 날을 맞아 7~9일 3일간 카네이션 화분 나눔을 실시한다.

행사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 농가를 돕고 어버이날을 맞아 어른 공경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원고객에게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했다.

건협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수질개선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캠페인 실시,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예천군, 孝사랑 잔치

예천군 노인복지관은 8일 오전 65세이상 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모시고 '2024 어버이날 孝사랑 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개회식, 카네이션 및 기념품 증정, 지역가수 노래공연 및 마술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표 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하게 되어 기쁘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어르신들의 땀방울은 지금의 예천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다"라며 "오랜 세월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의 도시 예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노인복지관은 예천군에서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1999년 5월 8일 경북 최초로 개관했다.

행사는 예천양수발전소에서 카네이션 255개를 지원받았으며 이밖에도 예천군은 어버이날을 맞아 읍·면장과 기관단체장이 함께 300여 개의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도 카네이션 1000개를 만들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대한노인회, 자원봉사거점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전달받은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전해줬다.

어르신들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카네이션을 받으며 기뻐했다.

전달된 사랑의 카네이션은 4월 한달 동안 주민,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만들었으며, 감사의 문구도 직접 적어 효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김종현 센터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에 동참하여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청 랑의 효도상 차리기 행사

중구청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어버이날 맞이 사랑의 효도상 차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고고장구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꿈나무 어린이집 원생들의 어버이날 노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관내 내빈들의 아버이날 맞이 축하 인사,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의 효도상을 차려드리기를 진행해 어르신을 향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방동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경산시 중방동새마을부녀회는 7,8일 이틀간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보은의 집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중방동새마을부녀회원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팔을 걷어 올리고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100명 넘는 소외된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내어드리며 이웃과 소통하고 온정을 나누었다.

진경화 중방동새마을부녀회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 한 끼가 소외된 어르신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게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해근 중방동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방동새마을부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방동새마을부녀회가 뿌린 온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행복 복지를 펼치겠다"고 했다.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 효 행사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문경점촌요양병원에서 70여 명의 어르신들께 효도화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 회원들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소 어려운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효도화를 달아드리며 안부를 살피는 등 문경점촌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달아드린 효도화는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 회원들이 손수 자체 제작한 카네이션 꽃이다.

이점숙 회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작은 정성으로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가 계속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 최은하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 오늘은 주름진 손 꼭 잡고 싶습니다

어버이 노고 공경 마음 만수무강 기원합니다

▣경주시 동천동, 경로당 방문

동천동 4개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통장협의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청년회)에서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최덕규 도의원, 임활 시의원과 함께 관내 경로당 18개소(미등록 2개소 포함)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인사를 드렸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은 동천동 업체인 남경엔지니어링, 보성마트, 에싸와 동천동 자유총연맹의 후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떡과 쌀, 라면, 휴지, 커피, 음료 등을 직접 전달하며,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천동 자생단체는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기부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달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깨끗한 동천동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물품을 전달받은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희순 동천동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한 동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산내면, 경로당 인사

경주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경로당 20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공경의 인사를 전했다.

산내면에서는 이번 경로당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장수를 기원하는 국수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전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줘서 더욱 의미 있는 어버이날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현관 산내면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효를 실천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강읍, 사랑가득찬 반찬 나눔

경주시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촘촘복지단'은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반찬지원 사업인 사랑가득찬(餐) 반찬나눔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과 함께 카네이션과 과일꾸러미를 전달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위원들이 직접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전달했다.

사업은 결식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안부확인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이다.

장용득 민간위원장은 "외롭게 홀로 지내시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어버이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안강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미향 안강읍 민원복지과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웃의 온정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랑가득찬(餐) 반찬나눔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함지박식당에서 매월 2회 국을 스마일정원(청정원)에서는 각종 양념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월성동, 효 잔치 개최

경주시 월성동 남산청년회는 통일전 일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버이날 맞이 인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남산청년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직접 준비한 소머리국밥과 다과를 함께 나눠먹으며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효 행사를 주관한 채명욱 남산청년회장은 "남산동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호 월성동장은 "어버이날 맞이 효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산청년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월성동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천시 완산동, 경로 효잔치

영천시 완산동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식과 경로 효잔치를 함께 개최했다.

지난 2월 26일 이전 개소한 신청사는 보다 발빠른 민원 대응을 위해 임시사용승인 중이다.

총사업비 128억을 투입해 연면적 274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준공돼 시장로 151(완산동)에 위치해 있다.

준공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과 마을 주민 등 500여 명이 함께 준공을 축하하고 경로 효잔치를 즐겼다.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1부 준공식이 진행됐고, 2부 경로 효잔치에서는 지역가수의 공연이 이어지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완산동청년회가 점심을 준비해 대접했다.

행사에서 완산동주민자치위원회가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 완산동통장협의회가 완산동 행복금고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인재육성에 힘을 보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완산동은 신청사 준공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다.

행정기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완산동의 백년대계를 견인할 신청사가 준공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은 복지와 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힘을 쏟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효잔치를 함께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흥이,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북면, '사랑의 빵' 기증

영천시 화북면 새마을부녀회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사랑의 빵' 150개를 화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화북면 새마을부녀회는 환경 정화활동과, 농약병 분리수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증하는 등 평소 지역의 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사랑의 빵'은 화북면 관내 경로당에 전달된다.

이복남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빵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꼭 어버이날이 아니라도 항상 경로당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권영철 화북면장은 "새마을부녀회의 작은 정성 나눔으로 만들어진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흐뭇하다. 행정에서도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카네이션 대신 등장한 이색 선물?

"어르신 건강을 위해 카네이션 대신에 장신구를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대신에 할머니들이 래퍼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신구를 선물해 눈길을 끌고 있다.

MG왜관새마을금고는 8일 칠곡 할매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리더 박점순 할머니와 기탁식을 개최하고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귀걸이·팔찌 등을 전달했다.

기탁식은 칠곡군을 알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수니와 칠공주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니와 칠공주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8명의 할머니가 모여 결성한 할매힙합 그룹으로 세계 주요 외신으로부터 K-할매라고 불리며 대기업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종철 MG왜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이 랩 공연에 필요한 장신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수니와 칠공주의 리더 박점순 할머니 며느리인 금수미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김 이사장은 수니와 칠공주의 한글 선생인 정우정 씨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검색하며 랩에 필요한 장신구를 마련했다.

박점순 할머니는"어버이날에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라며 "옷과 모자에 이어 장구류까지 지역사회의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래퍼 활동을 하고 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종철 이사장은"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도 수니와 칠공주처럼 랩을 했으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셨을 것 같다."라며"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집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MG왜관새마을금고는 △각종 장학금 기탁(2억 6000만원) △사랑의 좀도리 운동(시가 3700만원 상당의 쌀 4만㎏) △소외계층 지원(2200만원) △희망나눔캠페인(700만원) △마스크기부(250만원)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가장 왕성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왔다.

▣영주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행사

영주시노인복지관은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 회원 및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노래자랑 △특식 제공 △기념품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해 대구은행 영주지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주시지회,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북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 및 지원을 받아 더욱 풍성한 행사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성곡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사랑스러운 공연을 선물했다.

복지관 회원들의 공연과 지난해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의 공연, 지역 가수의 초청공연과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은 "복지관이 있어 정말 행복하다. 멀리 있는 자녀들도 찾지 못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있어 매일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며 행사 소감을 전했다.

이상규 관장은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주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어르신들이 노년이 더욱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필요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시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해면, 어버이날 기념 행사

영덕군 영해면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48명을 대상으로 했다.

참여자들께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꽃을 달아드리고 빵과 우유 등의 간식을 나누어주는 행사였다.

영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올 한 해 동안 24개 마을에서 환경개선 활동, 거리 질서 유지, 전통시장 교통 안내, 복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재희 영해면장은 "오늘의 영해면이 있게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양군, 감사한 마음

영양군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작은 행사를 했다.

행사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한 어버이날의 뜻을 되새기며,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민원실을 찾아 카네이션을 받은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뜻밖의 꽃 선물에 함박웃음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한 송이로 어르신들께 감사함을 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민원감동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송군 사랑의효 나눔' 행사

생활개선청송군연합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생활개선회원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농촌 만들기 '효 나눔' 행사를 울진 및 영덕군 일대에서 가졌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효 나눔' 화합 행사는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사회에서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어르신들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행사이다.

행사에서는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탑승하고 죽변 등대공원 탐방을 통해 탁 트인 울진의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덕군에 위치한 '킴스베리팜' 농장에서 딸기 수확과 딸기찹쌀떡 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행복한 가정의 달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생활개선회의 효 나눔 실천이 각 가정으로 전해져 따스한 오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시 어버이 날 행사

포항시는 8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포항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정욱 포항청년회의소 회장은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포항청년회의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가온누리 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한 장한 어버이와 연로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효행자,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3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참석 내빈 일동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큰절을 올렸으며, 식후 행사로는 MBN '불타는 장미단2' 신동가요제에서 우승을 차지한 포항시 홍보대사 류연주 양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부대행사로는 포항시니어클럽, 포항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이 참여한 어르신 일자리 홍보, 남구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혈압, 혈당 체크 및 치매 관리,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홍보 등이 마련됐다.

포항청년회의소가 운영한 디지털안내소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디지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예스치과의 구강 건강 체크, 성수미헤어갤러리, 디톤헤어양학점, 장수영디그니티헤어, 예주헤어, 미당헤어가 참여한 미용 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용찬 · 이정수 · 정창명 기자

2025 APEC 개최 후보 도시 선정 초읽기…최종도시는?

2025 APEC 경주, 세계가 기억할 글로벌 관광 1도시로 힘찬 도약
연 4700만명 찾아오는 국제도시 APEC정상회의유치 사활건 전쟁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3곳 모두 선정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후보도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9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3개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이달 중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실사단은 위원회에 소속된 유관부처, 민간 전문가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등을 포함한 인사들로 꾸릴 예정이다.

이후 후보도시의 유치 계획 발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최종 결정한다.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 모두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해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승부수를 던지고 총력전을 펼치고있다.

천년고도 경주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며 과거 수학여행의 메카에서 최근 황리단길까지 제2의 관광 전성기를 맞아 연간 4700만명이 찾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봐야 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위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할 수 있다.

경주시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동남아 주요국가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전 세계 GDP와 무역량의 과반을 넘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과 매스컴이 개최국과 개최도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개최도시의 국제적 역량과 인지도를 높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를 조성했다.

바로 경주보문관광단지다.

1979년 개장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단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앞서 관계부처에 친필로 지시한 "신라 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아, 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 할 것"이라고 한 마스터플랜은 아쉽게도 미완에 그쳐있다.

이런 면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미완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경주시에서도 2022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면 보문관광단지 전체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세계무대에 선 보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를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는 있지만 경기불황과 50여년 세월의 흔적은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현 정부의 중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찾아가는 행복병원' 본격 운영

경주시가 포항의료원과 연계, 지역 내 의료취약 마을 9곳을 선정, 올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의료진단 장비를 갖춘 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해 무료검진 및 진료,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의료취약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첫 '찾아가는 행복행원'을 감포읍 아랫너범 경로당으로 정하고 최근 인근 주민 17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 처방, 기본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경주 동궁원, 입장객 400만명 돌파 기념식

주인공 대구 사는 김영종씨
동궁원 좋은 추억쌓아 기뻐

경주 동궁원이 최고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있다.

2013년 9월 개장 후 방문객 400만 명을 넘어섰다.

동궁원은 지난 6일 입구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 입장객 4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관람객 400만 명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김영종 씨(41)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동궁원을 관람하러 왔다가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꽃다발과 동궁원 기념품 등 다양한 선물이 전달됐다.

동궁원은 아열대 식물원과 희귀 조류를 전시하는 버드파크가 조성된 사계절 복합문화공간이다.

신라 동궁과 월지에서 진귀한 화초와 새, 짐승을 길렀다는 삼국사기 기록과 신라 난생설화를 바탕으로 재현됐다.

김 씨는 "경주에 놀러왔다가 동궁원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방문했는데 재밌는 행사와 더불어 이렇게 뜻밖의 행운을 얻게 돼 너무나 행복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김성학 부시장은 "동궁원 입장객 수 4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지금까지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궁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동궁원이 최고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있다.

2013년 9월 개장 후 방문객 400만 명을 넘어섰다.

동궁원은 지난 6일 입구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 입장객 4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관람객 400만 명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김영종 씨(41)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동궁원을 관람하러 왔다가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꽃다발과 동궁원 기념품 등 다양한 선물이 전달됐다.

동궁원은 아열대 식물원과 희귀 조류를 전시하는 버드파크가 조성된 사계절 복합문화공간이다.

신라 동궁과 월지에서 진귀한 화초와 새, 짐승을 길렀다는 삼국사기 기록과 신라 난생설화를 바탕으로 재현됐다.

김 씨는 "경주에 놀러왔다가 동궁원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방문했는데 재밌는 행사와 더불어 이렇게 뜻밖의 행운을 얻게 돼 너무나 행복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김성학 부시장은 "동궁원 입장객 수 4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지금까지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궁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학 경주부시장이(왼쪽에서 네 번째) 지난 6일 동궁원 관람객 400만 명 돌파 행사에 선정된 김영종씨(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경주·포항 새마을회
각 300만원씩 기탁

경주·포항 새마을회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상호 기탁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응원했다.

두 단체는 지난 7일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에서 열린 '2024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는 경주·포항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상생발전 형산강 프로젝트다.

이날 김성학 경주부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정원 경주시새마을회장, 이상해 포항시새마을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정원 경주시새마을회장과 이상해 포항시새마을회장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건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양 도시에 각각 상호 교차 기부했다.

박정원 경주시새마을회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는 경주와 포항이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성학 경주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해주신 새마을회장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양 지역이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안강여중 정연 학생 큰 賞 받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모전 장려상 수상

경주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두빛나래 소속 정연(안강여중 1년) 학생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은 '2024 인공지능으로 그려보는 해양수산의 미래상' 주제로 지난 2월 5~28일까지 진행됐다.

정연 학생은 평소 연마한 인공지능(Chat GPT) 프롬프트 활용 능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이뤄진 쾌거다.

이번 수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기에 경쟁력 또한 상당하다.

그 가운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장려상 수상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더욱 크다.

앞서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민첩하게 수용해 올해 교육 주제를 '미래형 청소년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안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760-2593~2595)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동물 유기…경주시 유기 고양이 7마리 구조

경주 감포읍서 7마리 발견
눈병·피부병 감염 등 학대
경주시, 경찰에 수사 의뢰

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유기되는 동물과 동물학대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다.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다.

▣동물학대는 범죄행위

동물권행동 카라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동물학대 목격해도 신고 안하고 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하지만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13.1%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조처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45.6%)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18.7%), 3위는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7.0%), 4위는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11.2%)'로 뒤를 이었다.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는 6.9%에 그쳤다.

▣경주시 유기된 순종 고양이 7마리 구조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들이 집단 유기된 정황이 나와 경주시가 진상을 파악 중이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시장과 감포읍 연동리 일대에서 유기묘 7마리가 발견됐다.

이들 유기묘들은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쉬 숏헤어, 렉돌 등 모두 개인 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종묘다.

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안 됐다는 점, 수의사 등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황들을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당시 이들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해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번식묘까지 포함하면 버려진 품종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는 품종묘가 버려진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수의사)은 "이들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행위로써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동물학대 목격 시해야 할 일은?

학대상황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이나 귀로 보고 들을 수 없고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갈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동물학대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주소지와 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증거 부족으로 범인 검거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유튜브나 sns 등에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장에 있는 동물이 학대나 방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경찰관에게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긴급 피난 조처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동물보호담당관이 동물 학대로 판단할 시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해 3일 이상 치료·보호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치료 보호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7일 이내 미납 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동물의 사체만 발견할 경우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사망 원인을 밝힐 때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체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검을 요청해야 한다.

제보자가 현장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 후 경찰과 지자체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나 결과 통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담당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대 동물이 구조되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에게 반드시 학대자 계도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계도 조치란 동물 학대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경고와 학대자의 집, 사건 현장 주변을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일을 뜻한다.

학대자가 재학대를 못하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관광 · MICE 산업 부가가치 확대 매진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
관광·MICE 산업 업무협약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지난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과 관광·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동 사업 추진 확대 △도시재생사업과 관광·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과 상호 정보 공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두 기관의 인연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산하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육성한 황오마을여행사협동조합이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 중 하나인 '로컬여행상품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김용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역의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해 관광·MICE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확대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의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사의 마음"어버이날 전달

군위군 의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의흥면 삼국유사 청춘대학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버이날 더욱 쓸쓸할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13가구에게 간식 꾸러미와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어버이날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홀몸어르신께 전달된 카네이션은 의흥면 관내 소재한 의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의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이희준 민간위원장은"홀로 지내는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와 더불어 안부 확인도 하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달성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달성군은 지난 3일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달성경찰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청을 시작으로 관내 11개 읍·면 및 출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여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했으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진정 요청, 동료직원 도움 요청,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악성민원 제압 및 경찰 인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작년 3월부터 민원접점부서 및 읍·면에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황 발생 시에는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달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휴식공간 제공 및 힐링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최근 온라인에 신원이 공개되고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동구 孝잔치… "어르신들 행복하세요"

세대가 공감하는 따뜻한 공동체 존경받는 훈훈한 사회, 보람 있는 노후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시내 곳곳에는 경로잔치가 열렸다.

동구청 관내는 효사랑을 실천하는 경로잔치에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다.

신암1동 경로후원회는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방문해 600만원 상당의 떡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 관내 7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신암1동 경로후원회가 주관하고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신암새마을금고(이사장 이정호)는 50만원 상당의 떡을 준비했으며, 필마트(대표 한정미)는 250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후원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 4개 단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새댁식육점(대표 이태원)은 120만원 상당의 돼지불고기를, 한우정(대표 김영준)은 80만원 상당의 소고기 국거리를 준비했다.

또 동구 신천3동 소재 명옥이네 한식뷔페는 지난 6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3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김수봉 명옥이네 한식뷔페 대표는 "지역 주민으로 관내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도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선물(라면, 물티슈)을 전달했다.

동구 방촌동 청년회·자율방범대·경로후원회도 지난 1일 방촌동 퀸벨호텔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강대식 국회의원과 윤석준 동구청장 및 여러 인사들을 비롯해 지역의 만 76세 이상 어르신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로잔치는 방촌청년회, 자율방범대, 경로후원회의 주최로 열려 지역업체인 방촌 새마을금고, 방촌 신협, 퀸벨호텔&웨딩의 후원을 받아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식사와 기념품을 배부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병탁 방촌청년회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늘 존경받는 훈훈한 사회가 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회원들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평동 경로후원회도 지역 어르신 위해 경로잔치 개최했다.

동구 도평동 경로후원회는 지난 7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도평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주민 화합을 이루고자 20여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역 행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도평동 각급 단체, 기관, 업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이날 잔치는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초대해 한분 한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와 다과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무병장수의 염원을 담아 최고령자에게 은수저를 전달하고 사물놀이, 난타 등 다양한 공연도 열렸다.

김남현 경로후원회 회장은 "하루 종일 어르신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앞으로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로잔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서울국제관광전 '대구경북 투어페스타' 홍보관 운영

9일~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가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관광박람회인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서울 코엑스)'에 참가해 '대구경북 투어페스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2024 대구·경북 투어페스타'는 서울국제관광전과 연계해 대구·경북 관광분야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참관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동시에 개최되는 서울국제관광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고 40여 국가, 30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관광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시는 '우리가 몰랐던 대구'를 주제로 불로동 고분군, 앞산전망대, 화산산성 등 대구의 일상과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관람할 수 있는 '2023년 대구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로 참관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뚜벅이 도보 여행 추천 코스 소개 등 대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홍보와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여행 그 자체 경북, 여기에 다 있다'라는 콘셉트로, 백두대간, 낙동강 등 빼어난 강·산·해 자원과 한국 대표 세계유산, 짜릿한 레포츠 체험, 낮보다 아름다운 경북의 야간관광 등 관광 1번지 경북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여행상품 판매존에서 대구의 숨은 매력을 한 번에 경험 해 볼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티투어는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를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기존 코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시사철 투어, 전통시장 투어 등 신규 코스 개발로 대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다.

경북도는 여행 할인 통합플랫폼인 '투어054'를 통해 도내 각종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할인하는 '경북e누리상품'과 최근 새로운 일-휴식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북 워케이션' 상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대구·경북 투어페스타에서는 테마관 곳곳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경품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보물찾기 이벤트와 대구·경북 가상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포토 키오스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양 시도는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와 LED 무드등 꾸미기, 가위·바위·보 게임, 관광 캡슐 뽑기 게임 등 내외국인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대구·경북 만의 관광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배정식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가 가진 근대문화, 축제, 공연 등 도심 관광자원과 경북의 풍부한 역사, 생태, 전통자원을 묶어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2024 군위형 마을만들기' 주민 맞춤형 선진지견학 펼쳐

군위군은 '2024년 군위형 마을만들기' 156개 씨앗, 새싹, 스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우수 선진지견학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그리고 5월 9일 총 6일에 걸쳐 밀양 죽월, 거창 갈지, 제천 상천, 진안 원연장, 완주 인·봉두서두 총 6개의 우수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다.

견학대상지는 씨앗, 새싹, 스타마을 사업별 특색에 맞춰 선정했다.

마을만들기, 경관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소득·체험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이자 주민 공동체성이 뛰어난 마을을 대상으로했다.

주민들은 각 마을 위원장의 우수사례 강의를 듣고 현장을 견학했으며 마을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 또한 진행했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2월 새싹마을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2024 군위형 마을만들기' 156개 대상 마을을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이다. 박재성 기자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2026년 분양, 2027년 준공

대구도시개발공사 8일 수성구 삼덕동에 조성되는 대구대공원 사업부지(대구미술관 서측)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민간공원추진자로 선정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면적(162만500㎡) 중 135만㎡(83.1%)에는 동물원, 산림레포츠 시설 등 공원시설을, 27만5천㎡(16.9%)에는 공동주택 3000세대 등을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원시설은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대구대공원 내 공원시설에 동물복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동물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1970년에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3000세대와 초등학교, 유치원, 공공시설(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2026년에 2개의 분양단지 18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판다도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교통공사, 하루 수송인원 50만명 돌파

코로나 이후 하루 최다 수송인원 51만여명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3일 하루 수송인원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인 5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공사의 수송회복을 위한 노력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던 수송인원이 5월 초 연휴 기간을 앞두고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50만명 이상 달성일은 2018년 79일, 2019년 139일, 2020년 2일이다.

도시철도 수송인원은 2019년 일평균 45만9천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은 일평균 30만1천명으로 급감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던 수송인원은 2021년 33만5천명으로 다소나마 회복했으며 2022년은 36만5천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은 일상회복,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등으로 일평균 39만명이었으며, 2024년은 4월말 기준 3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올해 일평균 수송목표를 전년대비 4.6% 증가한 40만8천명으로 설정하고 수송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도시철도 이용 승객 증대를 위해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유지하고 역세권 대형 행사시 맞춤형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또한'손안에 대중교통'이라는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집 문 앞에서 약속 장소까지 도시철도~버스~개인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9일 오후 청년창업지원센터(완산중앙9길 7)에서 열리는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의성군의회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이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시작되고 의성군 주소를 둔 청년은 자동 가입된다.

김현찬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군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체육회 경북도민체전 고령군 선수단 훈련장 격려

고령군은 오는 10일부터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고령군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남철 고령군수와 조용흠 고령군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관계 공무원 20여 명은 쌍림초등학교에서 훈련 중인 태권도 선수단을 시작으로 탁구,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종목의 선수단을 차례로 방문했다.

조용흠 체육회장은 "그동안 훈련으로 고생한 우리 선수들이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여 도민체육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고령군 체육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고령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고령군 선수단의 선전을 군민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 신녕면, 내리 사랑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

(사)대한노인회 신녕면분회, 이웃돕기 100만 원 장학금 기탁

지난 8일 (사)대한노인회 영천시 신녕면 분회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사)대한노인회 신녕면 분회는 평소 자연정화 활동,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영천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으로 2019년부터 매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

최영석 회장은 2018년도에 개인적으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장학금 기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세대도 동참해야 한다."며 "영천시장학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탁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대가야읍·김천시 지례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협약

고령군 대가야읍과 김천시 지례면 간 지역 상생 발전과 화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지난 7일 김천시 지례면사무소서 이루어진 상호 기부 협약식에는 김진수 대가야읍장과 박용국 지례면장 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김진수 대가야읍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고령군과 김천시가 서로 상생하여 발전하였으면 좋겠고,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시 농특산물,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 직거래 행사 진행

16개 업체 70여 품목 참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상생

영천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관내 업체(농가) 15개가 참여한 가운데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서 영천시 농특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천시와 메가마트가 함께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또한, 대형 유통사와 농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영천의 농특산물인 사과, 딸기, 와인, 작약꽃, 과일음료, 떡류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70여 품목을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농산물 홍보와 함께 영천한약축제 홍보 및 이벤트를 통해 영천시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영천한약축제는 한방도시 영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작약꽃밭 개장과 다채로운 한방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축제이다.

행사가 열린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은 부산 지역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기로 손에 꼽히는 대형 쇼핑몰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누적 고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번 영천시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여 부산·경남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부산 메가마트와의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통해 부산경남 시민분들이 영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영천시를 알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하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영천시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재난대응 체계확립 및 저출생 대응 점검회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방안 모색

영주시는 지난 7일 시청 강당에서 '재난대응 체계확립 및 저출생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경상북도의 '경북형 재난대응 체계 대전환(K-Citizen First Project)' 추진에 따른 영주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19개 읍면동을 포함한 전체 부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산사태, 풍수해, 산불 등 재난유형에 상관없이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 전수조사 △사전대피자 일시구호 세트 지원 △1마을 1대피소 지정·운용 △여름철 예·경보시스템 운영 △마을대피소 실전대응 주민대피 훈련 △경찰·소방 등 협력 주민대피협의체 가동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민간 협력· 현장 중심의 총괄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어 육아·주거·고용환경 등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도출과 민관 협력 캠페인 진행 등 저출생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부서 간 현안 공유와 협업과제 발굴 등을 진행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국가적으로 재난대책 수립과 저출생 극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지속적인 영주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버섯산업의 미래 약용버섯종균센터 개소

전국 최고 송이버섯과 함께 약용버섯 주산지로 발돋움

봉화군은 지난 7일 관계기관과 버섯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용버섯종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약용버섯산업 활성화로 농업 새소득원을 개발하고 버섯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건립된 봉화군약용버섯종균센터는 물야면 북지리 474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기반 산업구축 사업에 선정돼 46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4219㎡의 부지에 영지·상황·노루궁뎅이·느타리·동충하초 5품목의 약용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배지생산시설 1469㎡와 10평 규모의 배양시설 14동 및 6평 규모 실증재배사 8동으로 조성됐다.

봉화군약용버섯종균센터는 전국 유일의 공공형 버섯 배지센터로 농가 스스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버섯배지를 만들고 배양해 갈 수 있는 자가배지생산시스템으로 운영돼 봉화버섯학교 교육을 수료한 농가는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약용버섯 배지를 배양해 갈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전국 최고 품질의 송이버섯 생산지라는 명성과 함께 봉화군은 이제 고품질의 약용버섯 생산을 위한 선진화 기반을 갖춘 약용버섯 주산지로 경북 북부지역의 버섯산업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 실증연구 및 현장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약용버섯 전문 생산자를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올해 도로점용료25% 감면 부과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추진

영주시는 침체된 경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3월 14일 국토교통부의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발맞춰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결정에 따라 시는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2천여 건에 대해 25%(약 6천만 원)를 감면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허가지원팀(☎054-639-6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가상놀이 체험공간 가상플레이그라운드 운영

의성군은 안계면에 의성푸드빌리지를 개소해 가족 단위 가상놀이 체험 공간인 가상플레이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2년 디지털타운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운영하게 된 가상플레이그라운드는 가상공간에서 의성군을 홍보함은 물론 가족 단위 가상 체험공간을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68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상 체험공간도 제공한다. 가상플레이그라운드는 초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증강현실 체험, 5종 코스를 자전거로 달리는 가상라이딩,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는 모두의 스포츠, 유아를 위한 키즈팡팡, 그리고 어린이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16종 율동 체크를 위한 체험공간 등 5가지 특색있는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생산품을 라이브방송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ICT교육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성주농특산물 홍보 직판행사 개최

성주군은 성주참외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4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노을공원에서 성주군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했다.

성주군과 서울시의 우호교류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성주참외의 본격 성출하기를 맞아 신선한 참외의 맛을 선보이는 장이 되됐다.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참여해 고품질 참외 시식 및 판매를 진행했다. 도재훈 기자

Sports 스포츠·건강 Health

100세 운동법

컴퓨터 앞 거북목, 좋은 스윙 못해…

스쿼트 등 코어 단련해야
여성은 기본 근력도 중요

대다수의 '직장인 골퍼'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다.

거북목과 허리 통증 등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가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에, 골프를 배울 때도 올바른 자세를 빠르게 습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강한 골프'를 위해선 우리 몸을 골프에 알맞게 어느 정도 '예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상 방지는 물론,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스쿼트와 런지로 코어 단련하면 골프 실력도 '쑥쑥'

골프는 전신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지만,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이지만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민나온 여자 골프 대표팀 코치는 "초심자가 하체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가운데 하체를 잡기 위해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쿼트와 런지는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짝 운동'이다. 엉덩이 근육과 하체를 강화하는 한편, 몸통 가동 범위도 늘려주면서 골프의 올바른 자세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 코치는 "코어 근육이 부족하면 어드레스 자세를 제대로 잡기 어렵다"면서 "스쿼트와 런지를 반복적으로 해주면 복근, 엉덩이 등 큰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승모근과 손목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힘도 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경우 전반적인 근력이 부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악력이 약하거나 골프채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관절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 경우 코어 근육 뿐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을 어느 정도 키운 뒤 골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힘 빼는 연습'이 필요하다. 멀리, 세게 때리려는 과시욕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비거리는 안 나오고 부상만 입는 사례가 더 많다.

골프채도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스펙을 꼼꼼히 고를 필요가 있다. 특히 초심자일수록 가벼운 무게의 골프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부상 예방엔 스트레칭…연습은 '오래' 보단 '자주' 가 좋아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골프 역시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특히 새벽이나 추운 날씨에도 라운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스트레칭은 중요성은 더욱 크다.

골프 국가대표팀의 의료 후원을 맡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김학재 원장은 "골프장에 미리 도착해 전신을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부상 방지의 관건"이라면서 "특히나 초심자는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면 무리가 올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경직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를 유연하게 하는 '몸통 돌리기', 어깨와 팔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수건으로 팔 당기기', 손목에 쌓인 부담을 줄여주는 '손목 젖히기' 등을 추천했다.

김 원장은 "이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민나온 코치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에 열을 내는 일종의 '준비운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런지 자세에서 몸통을 좌우로 움직이며 허리를 풀어주거나, 골프채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풀어주는 방법 등을 추천했다.

초심자의 경우 연습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보단 짧은 시간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민 코치는 "오랜 시간 연습을 하다 보면 체력 저하로 인해 자세가 유지되기 어렵고 부상 발생 위험도 커진다"면서 "하루에 몰아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봉화군, 도민체전 출발 좋다…
사전경기 군부 종합 1위

칠곡군청 레슬링팀이 레슬링 최강팀으로써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칠곡군청 레슬링팀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열린 제2회 헤럴드배, 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이중일(자유형 61kg), 김용욱(자유형 79kg)선수가 금메달, 김민서(자유형 125kg)선수가 은메달, 신민(자유형 74kg)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일반부 자유형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팀 내 유일한 그레고로만형 선수인 박부봉(그레고로만 55kg)선수도 금메달을 획득, 명실상부 레슬링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칠곡군청 레슬링팀은 1994년 5월 창단하여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올해부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김재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그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올해부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김재강 감독을 선임함과 함께 선수 또한 젊은 선수들로 대거 교체,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피 수혈에 성공하였음을 당당히 증명해 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칠곡군 레슬링팀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미경 기자

삼성 원태인 vs KIA 양현종 제대로 맞붙는다

원태인, 최근 5경기 연속 승
양현종은 '완투' 기운 잇는다

원태인, 양현종은 현재까지 국내 선수 중 평균자책점 1, 2위를 달리고 있다.

원태인이 1.79로 제임스 네일(KIA·1.26)에 이은 리그 2위, 양현종은 3.02로 리카르도 산체스(한화·2.39) 다음인 리그 4위다.

당초 둘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뻔했다. 로테이션 상 양현종이 7일 등판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일 경기가 우천 취소됐고, KIA는 로테이션이 하루씩 밀리면서 양현종이 8일 경기에 등판하게 됐다.

반면 삼성은 7일 선발 등판 예정이던 이승현 대신 원태인의 로테이션을 지켜주기로 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됐다.

토종 선발 중 가장 성적이 좋은 두 선수인 만큼, 최근 경기력도 빼어나다.

원태인은 3위까지 치고 올라온 삼성의 중심에 있는 선수다.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그는 지난달 9일 롯데전(6이닝 1실점), 14일 NC전(5⅓이닝 2실점), 20일 한화전(6이닝 무실점), 26일 키움전(7이닝 무실점), 이달 2일 두산전(6이닝 1실점)까지 모두 승리를 수확했다. NC전을 제외하곤 모두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였고, 5번의 등판에서 2실점이 한 경기 최다 실점일 정도였다.

여기에 최근에는 연속 이닝 비자책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NC전에서 4회 실점한 이후 한화전과 키움전에서 무실점 피칭을 했고, 두산전에서 내준 1점은 수비 실책에 의한 비자책이었다. 원태인의 비자책 행진은 20⅓이닝째 진행 중이다.

원태인이 팀 타율과 득점, 홈런, 출루율, 장타율, 득점권 타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KIA의 타선을 상대로도 무결점 피칭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KIA는 최근 김도영의 타격감이 물이 올라있고, 부진하던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도 살아나는 조짐이다.

지난주엔 간판타자 나성범까지 돌아와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상승세의 원태인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타선이다. KIA의 왼손 에이스 양현종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7경기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 3.02로, 원태인만큼 '압도적'이진 않다.

7번의 등판에서 44⅔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은 평균 이닝에서 6.38이닝으로 리그 1위에 올라있다. 꾸준하게 '이닝이터' 역할을 하며 팀 불펜의 과부하를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건강상식

스쳐도 아프다, 내향성 손발톱

손발톱 살 속으로 파고들어
꽉 조이는 신발 신지 않기

내향성 손발톱은 손발톱과 살 부분이 맞닿은 곳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손톱과 발톱에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

내향성 손발톱이 생긴 사람은 해당 부위가 조금만 스쳐도 심한 통증을 느끼고, 퉁퉁 붓게 된다. 손발톱 가장자리를 깊이 깎는 게 원인이다.

손발톱이나 그 조각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

꽉 조이는 신발을 오랫동안 신었을 때도 발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톱이나 발톱이 바깥 쪽에서 살을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내향성 손발톱이 생기기 쉽다. 이를테면 발톱 무좀을 오래 방치해 발톱 모양이 변형되거나, 꽉 조이는 신발을 장시간 신은 경우, 발가락뼈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내부 압력이 증가해 내향성 발톱이 생긴다.

뚱뚱해지거나 노화로 인해 발톱 굴곡이 변하는 경우도 내향성 손발톱이 생기는 이유다. 가족 가운데 내향성 손발톱 증상이 있는 경우, 유전적 요인도 발병 원인이다.

이 질환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준다. 대표적인 증상은 부어오름과 통증, 열감이다. 걷거나 뛸 때 가장 압박이 큰 부위인 발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내향성 발톱은 엄지발가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특히 오른발 엄지에 잘 생긴다.

고진영, 女골프 세계 1위 코르다 6연승 저지할까

PGA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오늘부터 미국 클리프턴서 개최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 타이틀 방어와 함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의 독주를 저지할까.

고진영은 9일(현지시각)부터 나흘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파71)에서 펼쳐지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나선다.

2019년 이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고진영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열리지 않아 2021년 재개한 대회에서 우승해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엔 이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선 이민지(호주)를 연장 끝에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처럼 고진영은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만 3차례 정상에 등극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부상 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고 있다.

LPGA 투어 통산 15승을 마지막으로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4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두 차례 톱10에 올랐고 지난달 메이저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에선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나마 가장 최근인 2주 전에 열린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선 공동 4위에 오르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고진영이 올해 첫 한국 선수 우승을 이룰지도 관심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에선 고진영을 비롯해 김효주(2015년), 김세영(2016년), 박인비(2018년)가 한국 선수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고진영과 함께 유해란, 양희영, 신지은, 최혜진, 김아림, 이미향, 지은희, 안나린, 전인지, 임진희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이 넘어야 할 산은 세계랭킹 1위 코르다다.

코르다는 이번 시즌 열린 LPGA 투어 10개 대회 중 5개 대회 정상에 올랐다. 특히 자신이 출전한 대회를 기준으로 5연승을 달렸다.

코르다는 5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면 LPGA 투어 최초로 6연승을 이룬다.

또 1승만 추가하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세계랭킹 10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도전장을 내민다.